

우리 문화의 지킴이

(사)禮智院 강영숙 원장 인터뷰

글·구성 : 권영욱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듯 한 나라의 근원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백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승되어 온 우리의 전통문화는 한민족의 얼이 깃든 민족의 혼이요, 지혜의 표상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사단법인)예지원(禮智院)은 「우리 문화의 지킴이」로서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997년 개원한 이래 예지원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생활화하는 동시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지반, 예절반, 규수반 등 일반인들이 전통문화를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월드컵이나 엑스포와 같은 국가적 행사 때에는 국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우리는 禮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형태가 없으니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게 됩니다. 그것이 곧 禮인 것입니다.

禮란 사람의 본 마음과 같은 것이라 합니다.

본마음이 맞으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면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면 오가는 말이 순해지고, 말이 순하면 행동거지가 신중해지니, 비로소 예의가 제대로 지켜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따라야 할 禮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는가 하면 부부지간에도 갖춰야 할 禮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만나거나 웃어른을 찾아 뵈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 禮를 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반가움과 공경의 의미로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어떤 인사법보다도 정성이 갖추어져 있고 보기에도 품격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공수법에 따르면 절을 하기 전후(前後), 혹은 손윗사람 앞에서 있을 때에는 남자는 왼쪽 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쪽 손이 위로 되게 잡습니다. 그래야 예의(禮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니다(홍사 때는 반대). 그리고 읊자세로는 두 손을 마주잡고 원을 그리듯이 콧등 위에 올리게 됩니다. (서양의 인사법에 비해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강원장은 결단코 아님을 강조했다. 동서양의 인사하는 방법만이 다를 뿐 ‘윗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근본정신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인사법을 통해 우리 조상들은 매사에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를 배웠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논할 때 우리는 한복(韓服)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복은 한민족의 고유한 옷으로서 한민족의 생활윤리와 그 맥락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역사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의 기본구조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복은 의외로 과학성이 돋보이는 옷입니다. 인체에 맞춰 곡선으로 바느질하였기에 활동하기에 편할 뿐만 아니라 그 여유와 넉넉함으로 신체적인 결함마저 감춰줍니다. 더구나 계절에 따라 다양한 옷감을 사용(봄 가을에는 비단을, 여름에는 모시나 베를, 겨울에는 양단함으로써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을 가져다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아한 한복에 생기와 멋을 불어넣는 것은 선(線)의 아름다움입니다. 여인의 하얀 목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주는 저고리의 안깃과 걸깃이 이루는 V자형의 선, 그리고 자연스럽게 둥글린 배래의 곡선은 온화한 미를 돋보이게 합니다. 한편 저고리에서 치마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고름의 선은 단아하면서도 정숙한 멋을 풍깁니다. 이러한 것은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담으로 묶은 바짓부리의 선은 힘있고 남성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맵시와 걸음걸이에 따라 한복의 선의 아름다움은 더욱 강조됩니다. 이밖에도 한복의 배색과 무늬, 수장식 등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선인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복은 그 형태, 색채, 문양 등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생활에 알맞게 설계됨으로써 우리 생활에 절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단정하고 정숙하게 맨 저고리의 고름, 뒤통임이 있는 치마는 입을 이의 행동을 더욱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예절을 가르쳤기에, 한복을 입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은 언제나 바르고 예의에 맞는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란 곧 가장 아름다우며, 또한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것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오늘날을 흔히 전통문화의 위기시대라고 합니다.

각종 부조리와 패륜(悖倫)은 언론을 통해 날마다 전 해지고 있고, '禮' 보다는 '돈'을 숭배하는 황금만능주의는 우리 사회에 빨간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물질적인 풍유보다는 예의바르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다운 삶의 향유에 무게를 더 둡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신문화의 위기는 전통적인 예(禮)와 효(孝)의 실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승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예지원이 앞장 설 것임을 강 원장은 다짐했다.) 7